

가자! 축제의 바다로~

여름축제

해변을 따라 물길을 따라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로 여름이 꾸며지고 있다. 축제의 현장에서 만드는 여름 이야기. 여름이어서 더 신나는 여행 그리고 축제를 찾아가보자.



보령 머드축제



장흥 물축제

◆보령 머드 축제 (~7월28일)

대전해수욕장을 무대로 진흙축제가 한창이다. 여름을 대표하는 보령 머드 축제,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한데 어울린 자유롭고 흥미로운 여름이다. 머드 위에서 마음껏 뒹굴 수 있는 에어바운스머드체험장은 인기코스. 갯벌 극기체험과 갯벌 마라톤(27일) 등 흥미로운 행사가 가득하다. (http://www.mudfestival.or.kr)

◆오징어축제 (속초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 7월27일~8월3일, 울릉도 오징어축제·8월5일~7일)

속초 하면 오징어, 오징어의 고향 속초 장사항이 즐거운 축제(http://www.jangsahang.com)로 들쭉인다. 장사항 앞바다에서 요리 조리 쏙쏙 피해가는 오징어를 쫓으며 보내는 시간. 직접 잡은 오징어를 회로 먹는 맛은 덩이다. 울릉도도 오징어가 빠지면 서운하다. 울릉도의 비경을 내다보며 오징어를 잡고, 건조과정을 체험하면서 각종 오징어요리를 만날 수 있다. (http://www.ulleung.go.kr)

◆정남진 장흥 물축제 (7월26일~8월1일)

장흥에 시원한 물 축제가 펼쳐진다. 탐진강 하천, 장흥댐 호수, 특랑만 해수 등 청정 수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테마 축제로 장흥의 푸른 자연이 더욱 빛난다. 야외 풀장에서 즐기는 물놀이, 편백나무 숲에서의 산책,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 등 장흥의 여름이 더욱 뜨거워진다. (http://www.jhwater.kr)

◆화천 쪽배축제 (7월27일~8월11일), 정선 아우라지 뗏목축제(8월2일~3일), 제주 이호테우 축제(8월2일~4일)

여름 뱃놀이도 있다. 겨울 산천어를 잡으려는 인파로 분주하던 화천강, 여름에는 쪽배가 물들인다. 독특한 모양의 배를 만들어 강에 띄우는 체험축제(http://www.narafestival.com). 청정 자연 속에서 만드는 낭만과 추억이 있

다. 정선아리랑의 애뜻한 사연이 담겨있는 아우라지 물길을 따라 뗏목을 타고, 돌다리를 건너며 여름의 정취를 만나는 축제(http://www.auraji.net)도 있다. 제주도 이호동,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고유의 어로 문화를 하나의 축제로 만들었다. 통나무를 엮어 만든 테우. 테우노컷 대회, 테우 모형 만들기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http://festival.jeju.go.kr)

◆목포 해양문화축제 (8월2일~6일)

'해양의 등대 목포, 내일을 비추다.' 목포 고유의 해양문화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바다의 축제, 용왕 이야기를 바탕으로 축제가 꾸러진다. 여름 밤바다를 빛낼 빛의 향연 속 야경투어, 해변 마라톤대회, 바다수영 대회 등이 풍성하다. (http://www.mokpofestival.com)

◆강진 청자축제 (7월27일~8월4일)

흙·불 그리고 인간. 우리나라의 보물들이 탄생한 곳, 200여기의 가마터가 남아있는 곳에서 청자의 그윽한 멋을 느낄 수 있다. 고려왕실의 행차 모습을 퍼레이드로 만나고 직접 청자를 빚어볼 수 있다. 즉석 경매행사 등도 마련됐다. (http://www.gangjinfes.or.kr)

◆무안연꽃축제 (~7월28일)



무안 회산 백련지에 연꽃이 그득하다. 초록 연인 사이로 곱게 꽃망울을 내미는 연꽃의 자태는 여름을 더욱 빛나게 한다. 연동길을 걸으며 보내는 시간은 특별하다. 무안의 특산물과 향토 음식도 준비됐다.(http://tour.muan.go.kr/culture/festival)

◆록페스티벌 (안산 밸리 록페스티벌·7월26일~28일, 부산 국제 록페스티벌·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8월2일~4일)

강렬한 록음악은 여름과 어울린다. 록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도 풍성하다. 안산 (http://www.valleyrockfestival.com)에서 스타트를 끊는다. 대부분 바다향기 테마파크 내 페스티벌 파크, 새로 마련된 탁 트인 시야의 넓직한 전용 부지가 음악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흥대 문화 이전의 인디 음악 중심지 인천. 음악적 토양을 바탕으로 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http://www.pentaportrock.com)이 깊은 울림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의 도시 부산이 음악의 도시로 변신한다. '해양성, 개방성, 젊음'을 표현하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http://www.rockfestival.co.kr)

◆봉화은어축제 (7월27일~8월3일)

물 맑고 공기 좋은 봉화에는 은어가 필적이다. 내성천에 뛰어들어 은어를 잡으며 여름을 즐긴다. 뱃타기와 래프팅, 수상줄다리기 등 시원한 물속에서 더위를 쫓으며 시간을 보낸다. 매일 밤 8시 공연행사가 펼쳐진다. 삼랑살랑 감바람 따라 음악이 울린다. (http://www.bonghwafestival.com)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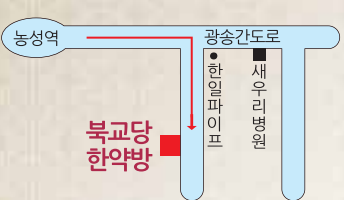
-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